‘불단’은 열반을 죽음이라 하는 것과 같은 표현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수미단, 불탁, 불단→영기좌(靈氣座) 영기단(靈氣壇) ㊦

일반 명칭을 택하여 일차원적으로 불단(불상이 자리 잡는 단)이라고 말하면 그른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전문용어로는 상징을 살렸다고 여기고 써 온 용어로서 규모가 작으면 수미좌라 부르고 크면 수미단이라 부르듯, 규모가 작으면 영기좌(靈氣座), 규모가 크면 영기단(靈氣壇)으로 부르면 어떨까 제안한다. 명칭과 용어는 다르다. 명칭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 명사이어서 잘못 이름 지어 그른 길로 인도하는 것 보다는 낫지만,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서 의미가 전혀 없으며 그런 명칭은 용어가 아니다. 명칭은 대상이 특별한 상징을 보일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하는 전문용어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조형미술의 해석과정에서 사막과 같은 무생명(無生命)으로부터 상징의 숲이라는 대생명(大生命)으로 인도하는 대전환이 이루어진다. 조형미술의 놀라운 상징을 읽어내면 비로소 ‘창조적 용어(創造的 用語)’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여래가 앉는 단(불단)’이라는 말은 여래가 열반에 들었다는 것을 여래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수미단은 그릇된 것이므로 언급할 가치가 없다.

영기단 안에는 ‘무량한 물’이 담겨져 있다. 우리는 중국의 불화에서 여래가 앉아 있는 수미단을 아주 조금 들추어 주어서 그 안에 바다가 넘실대는 파도를 엿본 적이 있다. 즉 그것은 무한한 영기가 충만해 있음을 뜻한다. ‘영묘한 물’에서 갖가지 영기문이 나타난다.’ 즉 영기단이라는 육면체의 거대한 나무 상자는 ‘만병(滿甁)’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그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다. 즉 망망대해(茫茫大海)가 들어있다. 그 진실은 표면에 새긴 수많은 영기문으로 알 수 있다. 만일 그 무한한 공간에 물이나 영기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처럼 생명생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다양한 영기문을 표면에 새겨질 수 없다. 그러므로 영기단 맨 아래의 영기창으로부터 용(龍)의 얼굴이 나오고 입에서 영기문이 좌우로 뻗친다. 그것은 불단 맨 밑으로부터 ‘물’이 무량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상징한다.

바로 만물을 영기화생하게 만드는 영기좌(靈氣座: 작은 대좌)나 영기단(靈氣壇: 큰 대좌)에서 마침내 절대적 진리인 여래가 화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래가 영기화생하는 장엄한 광경을 보여 주는 그 근원적 표현이 영기단인데, 불단이라는 명칭으로는 그 엄청난 상징을 떠 올릴 수 없다. ‘여래와 보살을 영기화생시키는 단’이라는 명칭을 줄여서 ‘영기좌’나 ‘영기단’이라 부르려는 것이다. 이처럼 ‘영기에서 여래가 화생하고, 화생한 여래로부터 영기가 발산한다’는 원리에서 보면 화생한 여래에서 발산하는 영기는 바로 설법할 때 여래의 입에서 발산하는 법문(法門), 즉 성음(聖音), 혹은 영음(靈音)이다.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조선시대에 여래로부터 발산하는 이른 바 광배(光背)가 대부분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의 영기단을 채색분석하면서 설명해보기로 한다.

경산시 동학산(東鶴山) 경흥사(慶興寺)의 영기단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았을 때 매우 놀랐다. 부산의 도반들과 함께 경흥사에 가서 조선시대의 영기단을 보았다.(그림 ①) 고맙게도 파손된 불단에서 3개의 목판을 취하여 현재의 영기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놀란 까닭은 이 불단의 영기문이 고구려 사신총 영기문의 전통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림 ②) 앞면의 것은 일반적인 조선시대의 형식으로 모두 영기문에서 만물이 생성하는 도상인데 다음 회에서 다룰 것이다. 측면의 것만 자세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 채색분석 한 도면에 설명을 붙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글에서는 설명하지 않는다.(그림 ③, ④) 이 영기문 조각은 매우 입체적이어서 더욱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매듭에서 사방으로 발산하는 영기문을 표현했으므로 뒤에 숨어있는 것도 많다. 그래서 부분을 크게 그려서 채색분석 해보았다.(그림 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중요한, 생명이 충만한 조형들을 그릇된 용어와 의미 없는 용어로 숨 막히도록 묵을 졸라왔는가,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자신이 속한 문화가 강요하는 좁은 정신적 틀 안에서 스스로를 속박할 수 없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그림 ① 영기단 전경

그림 ② 영기단 측면의 영기문

그림 ③ 영기문 채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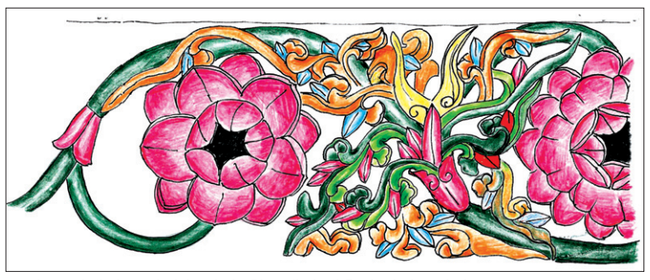

그림 ⑤ 입체적 표현이 놀랍다. 황토색이 배후의 영기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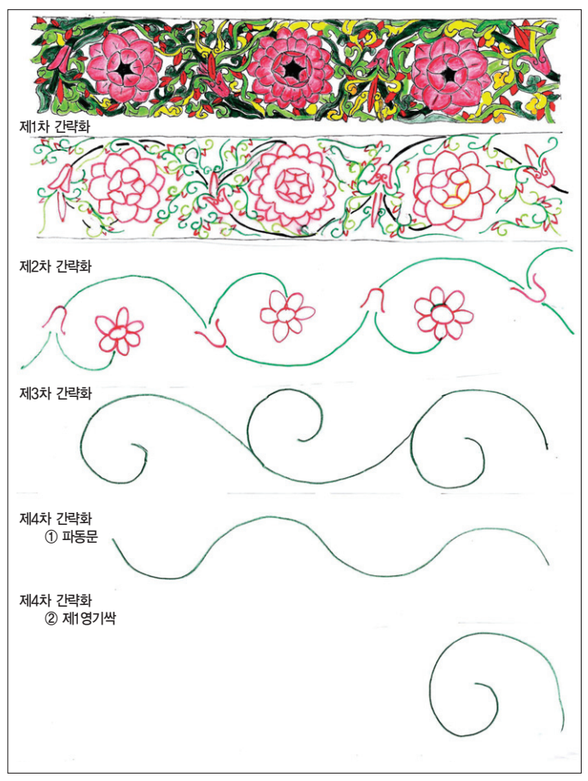

그림 ④ 영기문의 단순화 과정

① 첫째번의 영기문으로 된 매듭에서 좌우로 굵은 영기문 줄기가 뻗쳐나가고, 그 갈래 사이에서 긴 빨간 연봉 같은 것이 두 개 나오는데 ‘만물’을 상징하며, 동시에 제3영기싹 영기문들이 다투어 쏟아져 나온다.
② 제2 영기문 매듭에서도 역시 긴 빨간색의 만물을 상징하는 형태에서 노란색 영기문이 발산하고, 동시에 〈제3영기싹의 연쇄적 영기문〉이 폭발적으로 좌우로 발산하여 여백을 빈틈없이 채운다. 그리고 굵은 줄기 두 가닥 가운데 한 줄기는 영기꽃으로 이어지는데 복잡한 영기문의 전개에 가리어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도상은 커다란 영기꽃이 화생하는 모양인데, 이러한 영기문이 다른 모든 영기단의 바탕을 이루어 온갖 영조(靈鳥)와 온갖 영수(靈獸)들이 화생하며 영기단의 장엄한 광경을 보여준다.
③ 바로 이러한 만물이 화생하는 영기단에서 여래들이 마침내 화생한다. 그러므로 여래의 화생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영기단이다.
④ 영기문의 단순화 과정
• 제1차 단순화 – 채색분석한 영기문을 선(線)으로 환원시키면 제1차 단순화가 이루어 져 파악하기 쉽다. 자세히 보면 제3영기싹이 덩굴모양으로 끊임없이 전개하여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2차 단순화 – 이 영기문의 골자에서 매듭으로부터 다시 영기 줄기가 두 갈래로 갈 라 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 제3차 단순화 – 제1영기싹의 가장 기본적 영기문으로 환원되므로 가장 중요한 영기문 이다. 일체의 영기문의 기본적 전개를 보여준다. 물을 상징하므로 이 영기문을 바탕으로 일체의 생명이 생성된다.
• 제4차 단순화 1.~파동만이 남는다. 물리학에서 만물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 다.
• 제4차 단순화 2.~제1영기싹이 모든 영기문의 시초가 된다. 영기문의 가장 중요한 가 장 작은 단위이다.

藥이 되는 사찰음식

새콤달콤 채소와 오곡가루로 영양 챙기세요

오곡소스의 가지 애호박찜

△재료(4인 기준)
○ 애호박 1개, 가지 1개
○ 소 - 표고버섯 3장, 풋고추 2개, 홍고추 1개, 당근 30g,
○ 오곡소스 - 생콩가루, 들깨가루, 찹쌀가루, 서리태가루, 통보리가루 각 2큰술씩, 다시마물 1.5컵, 국간장 1큰술, 된장 1작은술, 고추장 1큰술, 소금 약간

△만드는 법
① 애호박과 가지는 길이 4cm 정도로 잘라 열십자 모양을 내거나, 반으로 썰어 어슷하게 세 번 칼집을 넣어 모양을 만든 후 소금에 살짝 절여 소가 잘 들어가도록 한다.
② 표고버섯, 풋고추, 홍고추, 당근은 채썰어 소금으로 간하여 볶아 준비한다.
③ 절인 애호박과 가지에 소를 채운다.
④ 다시마물 반컵에 양념을 넣어 잘 개어 둔다.
⑤ 냄비에 애호박과 가지를 넣고 다시마 국물 1컵을 부어 끓인 후 양념을 넣고 3분 정도 뜸을 들인다.

오이선

△재료(4인 기준)
○ 오이 1개
○ 소 - 노란파프리카 1/4개, 홍피망 1/4개, 표고버섯 2개
○ 단촛물 - 물 3큰술, 매실식초 3큰술, 매실액 3큰술, 소금 1/2작은술

△만드는 법
① 오이는 길이대로 절반으로 자른 다음 4cm 정도의 길이로 어슷하게 세 번 칼집을 넣어 소금에 절인다.
② 노란파프리카, 홍피망, 표고버섯은 채썰어 소금으로 간을 한 후 볶아 준비한다.
③ 절인 오이는 살짝 볶아 식힌 후 소를 채운다.
④ 냄비에 단촛물 재료를 넣고 살짝 데워 식힌 후 먹기 직전에 오이에 뿌려 낸다.

여름채소는 냉각 효과 있어

식욕을 자극하는 여름철 대표 채소인 오이, 가지, 애호박을 이용하여 새콤달콤한 맛으로 흩어진 기를 모으고, 오곡가루로 영양이 가득한 일품요리를 만들어 본다. 오이는 이뇨작용이 뛰어나 부종이나 위가 약하거나 장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할 때, 숙취해소에 도움이 되는데 볶아서 먹게 되면 더욱 아삭한 식감과 함께 단맛이 증가되게 된다. 여기에 매실을 이용한 식초와 청으로 새콤달콤한 맛을 더하게 되면 신맛의 수렴하는 작용으로 인해 기를 모을 수 있게 된다. 가지는 붓기를 빼고 통증을 가라앉히며 혈압을 낮추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여름채소로 냉각 효과를 가지고 있어 여름을 타거나 몸이 화끈거릴 때나 열이 많을 때 먹으면 효과가 있다.

애호박은 이뇨작용, 간기능과 위장기능을 강화하여 식욕을 증진시키는 효능이 있다. 애호박과 가지에 소를 넣고 익힐 때 애호박과 가지의 익는 정도가 다름으로 애호박을 먼저 넣고 한 번 끓으면 가지를 넣어 주어야 좋다. 그리고 여기에 구수한 된장과 고추장으로 간을 맞추고 오곡가루를 넣어 깊은 맛을 낸다. 단, 찜으로 조리할 때 다시마국물에 오곡가루를 풀어 두었다가 넣어야 날가루 냄새가 나지 않게 된다. 오곡가루를 모두 준비하기 어려울 때는 여름철에 많이 먹는 미숫가루를 이용해도 좋다. 그리고 오곡은 잘 씻어 프라이팬에 볶은 후 컷터에 갈아서 냉동보관 후 필요할 때 마다 사용하면 된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 30,800원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크기 : 직경 10mm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